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 마음의 다스림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 의식들에게 통한다

치병의 도리에 대해

질문 저는 어디가 아프다 싶으면 병원을 가기보다 자연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스님 법문 중에 치병의 도리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육신의 병을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예전에 상대방은 영 모르니 할 수 없이 이렇게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전에는 왜, 뭐? 그걸 이름을, 뭐더라? 꽃이 일어났다 그러던가요? 그것만 일어났다 하면은 예까지 차면 죽는다고 합디다. 그, 빨갛게 전부 그냥 두드러기처럼 일어나면서 진물이 나면서…. 몸뚱이가 또 하얗게 백목이 먹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집디다.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하나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이름이 많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도 오고 어디에서도 온다 이럽니다. 근데 귀찮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종차 거기에 끄달려서, 한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예기랄 거, 그냥 거기에 끄달려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다 저기에서 일어난 거다 이럭하고선 찾다 보면 사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살기가 고달프고 참 막연하고 어처구니없을 때가 있죠.

여기에서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마는 저 미국으로 간 오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그 병을 얻었죠. 그래서 이 잔등이로 배로 어디로 뭐, 하나 성한 데 없이 그것이 나면서 숨이 차올라 오면서 정신은 자꾸자꾸 희미해 갔습니다. 그때 그 집은 병원으로 찾아다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 병원 의사, 박사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겼으니까, 병원에 와서 약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고 자리 한 자리라야 어떻게 해 볼 텐데 여러 자린데, 또 그것을 따고 물을 빼고서 약을 발라 주면 얼마 안 있어서 딱젱이가 앉으면서 그 속에 또 물이 앉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뻘겋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뻘겋게 그냥. 그래 가지고 예까지 차면 죽는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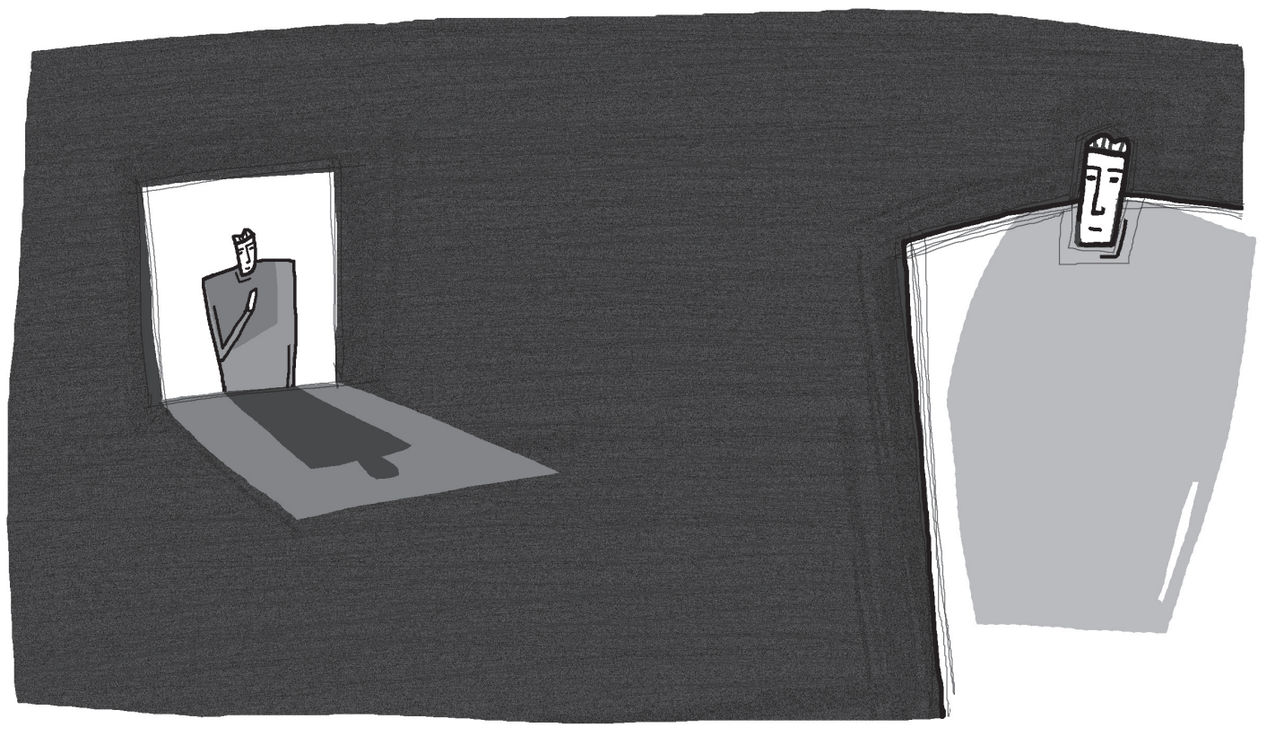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게 옛날에 이름이 있었습디다. 모두 지금은 새 이름을 붙여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귀찮아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벗겨서 보이는데 엄청나요. 이거는 뭐, 거기에 안으로 들이 긁기만 하면 뭐 꼼짝없이 그냥 죽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달렸어. 이 약의 종류가, 어디든지 이 약이 있어. 그런데 이 산천초목에 그 약이 없을라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죽이든지 살리는 건 여기에 매였다고 맡겨 놔 버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가서, 그날 저녁에 불이 나가서 촛불 켜 놓고선 그냥 앉아서 밤을 새다시피 잠을 자려니까 의사 셋이, 하얗게 소복한 의사 셋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또 간호원이고 한 분은 그 기계 가방을 들었더랍니다. 들어와서 전부 이 가방 속을 탁 여는데 보니깐 전부 풀뿌리에 싹이 난 그거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방인데 풀어 놓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일어나더랍니다, 이렇게. 전부 살았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스님이 있다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들어가고 이 한 이파리만 나와도 되느니라."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이파리가 나와서 거기 전부 아픈 데 가서 붙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이파리가 붙는 게 아니라 그 이파리가 그저 붙어서 진을 묻히고 진을 묻히고 이럭하곤 돌아가더니만 가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방 속이라고 그런다고 가방인 줄 알지 마세요. 전체 우주 삼라만상 한데 합쳐진 가방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더니 그 이튿날 아침부터 그게 꾸득꾸득하더니 그냥 씻은 듯 부신 듯 나았더란 얘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알려고 그러고 또는 종류를 쫓아다니며 끄달리고 이러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하나하나 듣고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내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내 마음 한 점이 이게 가방 하나라면 우주 전체 대천세계에 가방 하나라면, 그렇다면 끄달릴 거 하나도 없죠. 죽는다 하더라도 끄달릴 것 없고 산다 하더라도 끄달릴 게 없고 거기에 뭐가 끄달릴 게 있습니까. 종류에 끄달려, 이름이 끄달려? 만약에 생각으로 한생각이면 배가 부르고, 한생각이면 그 어디 아픈 게 낫고, 한생각이면 저기 가고, 한생각이면 여기 오고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살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고 말입니다.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면 영원히 또 그렇게 이렇게 끄달릴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끄달리는 이 자체가 한 점의 마음에 달렸으니 천 가지 만 가지 나오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보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듣는 거, 천 가지 만 가지 활용하는 거 모두 일절 자기의 성품에 의해서 한 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맡겨 놓는 반면에 거기에서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약이 돼서 자기에 부당한 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바로 거기에 맞는 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보이는 약만 생각하고 보이는 이름만 찾고 보이는 데서 방황합니까.

물도 병 종류에 따라서 물이 따라 줍니다. 물이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물도 선약이 돼 줄 수가 있고 아주 또 그냥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서 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고 모든 게 귀찮기만 하고 모든 게 종류도 많고 끄달리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사람 살아나가는 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두 그 편편치가 못하고 귀찮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칫솔로 쓰시지마는 그때는 소금을 가지고 손으로 쓰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에 모두 빗이나 뭐, 이런 것도 때로는 외출을 할 때 가지고 다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 빗 같은 게 소용없지요. 그런데 인제 칫솔은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칫솔도 다 소용없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빨이 좀 텁텁할 때는 항상 또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천 바닥에 가서 그 개천 앙금이 요렇게 앉은 걸 가지고, 고 아주 가느다란 앙금 모래를 가지고선 항상 닦았습니다, 다니면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얻은 게 뭐냐 하면 '야, 여기에도 선약이 있고, 여기에도 독약이 있구나.' 만약에 위가 헐어서, 즉 먹지 못해서 마른 데는 바로 이 느끼가 같이 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